

社説

적극적 자세로 해결을

다시 양해각서에 따라 합작법률...

社説

全·李는 분명히 犯罪者다

全斗煥, 李承晚의 범죄행위를 논하는 기사...

북정권의 양분정책에 따른 남북 교류

북정권이 양분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기사...



盧씨, 12.12가 무미 「노린적」 행동

애국세련단결로 全·盧 처벌해야

盧武鉉의 12.12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애국세련단결로 全·盧 처벌해야'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다룬 기사...



부하가 머리카락이 단결로... (Caption describing the photo above)

광수항쟁 청문회 (Kwangsu Hangsang Cheongmunhui)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포퓰리즘 정책 부정에 근거 (Populism Policy Based on Groundless) advertisement with a large headline.

군사독재의 이데올로기 교육 거부 (Refusal of Ideological Education of Military Dictatorship) advertisement with a large headline.

HYUNDAI advertisement for computers, featuring the slogan '현대전자의 자랑입니다' (This is the pride of Hyundai Electronics) and details about various PC models and services.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 ### ◆ 관심사 차례
- 1) 학원수업의 평가와 학습 방법
 - 2) 재야의 역할과 조직과제
 - 3) 노후사무원과 노후생활
 - 4) 청년수업의 질과 과잉교육
 - 5) 여성의 실업과 취업문제
 - 6) 도시빈민수업의 실태와 대책
 - 7) 시리프 박자곡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민중의 역동성 담보해 내야
재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김푸리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규과정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램인원: 7개월
프로그램인원: 1년
프로그램인원: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MS/DOS, DATA BASE, SYSTEM 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호통계, C LANGUAGE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램인원 특강
과목: FORTRAN, PASCAL, BASIC
기간: 12월 26일~2월 15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기간: 12월 26일~2월 10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본원: 이대인구
전화: 313-1711-4
영등포: 678-3785, 0750
부: 43-0444-6

총로: 단성시영
전화: 745-0461-2
영등포: 546-4255-6
부: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증강전산학원

현대 시스영어사외국어학원
(외국인의 한국어학원)

대학생 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VOC, 2000, 영자본 연구, 성음 종합영어, AFKN,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개강 12월 1일

과외교수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 5081~2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 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The Korea Herald
외국어학원

대한민국 입시반
고급 TOEFL 종합반
생활 영어 회화
Stream Line
Practical English
Spectrum English
English Alive
Side by side
美國人·日本人會話
일본어·독일어 I·II
일본어 SCREEN
독일어 스페인어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교육과정: 1. 2시간 수업 (월~금) 수업 총 6개 수준. 각 수준 8주
진행 및 반성: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12명으로 반 구성

강사진: 미국·한국·일본·대만·중국·영국·일본의 전인 Native Speakers

The Korea Herald 어학원수원
중·화: 768-7711, 483-484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김푸리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규과정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램인원: 7개월
프로그램인원: 1년
프로그램인원: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MS/DOS, DATA BASE, SYSTEM 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호통계, C LANGUAGE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램인원 특강
과목: FORTRAN, PASCAL, BASIC
기간: 12월 26일~2월 15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기간: 12월 26일~2월 10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본원: 이대인구
전화: 313-1711-4
영등포: 678-3785, 0750
부: 43-0444-6

총로: 단성시영
전화: 745-0461-2
영등포: 546-4255-6
부: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증강전산학원

우리자학원
735-2323
9716

남(陸軍)지행정병
모집

남(陸軍)지행정병
모집

김푸리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규과정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램인원: 7개월
프로그램인원: 1년
프로그램인원: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MS/DOS, DATA BASE, SYSTEM 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호통계, C LANGUAGE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램인원 특강
과목: FORTRAN, PASCAL, BASIC
기간: 12월 26일~2월 15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기간: 12월 26일~2월 10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본원: 이대인구
전화: 313-1711-4
영등포: 678-3785, 0750
부: 43-0444-6

총로: 단성시영
전화: 745-0461-2
영등포: 546-4255-6
부: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증강전산학원

현대 시스영어사외국어학원
(외국인의 한국어학원)

대학생 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VOC, 2000, 영자본 연구, 성음 종합영어, AFKN,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개강 12월 1일

과외교수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 5081~2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 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The Korea Herald
외국어학원

대한민국 입시반
고급 TOEFL 종합반
생활 영어 회화
Stream Line
Practical English
Spectrum English
English Alive
Side by side
美國人·日本人會話
일본어·독일어 I·II
일본어 SCREEN
독일어 스페인어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교육과정: 1. 2시간 수업 (월~금) 수업 총 6개 수준. 각 수준 8주
진행 및 반성: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12명으로 반 구성

강사진: 미국·한국·일본·대만·중국·영국·일본의 전인 Native Speakers

The Korea Herald 어학원수원
중·화: 768-7711, 483-484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김푸리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규과정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램인원: 7개월
프로그램인원: 1년
프로그램인원: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MS/DOS, DATA BASE, SYSTEM 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호통계, C LANGUAGE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램인원 특강
과목: FORTRAN, PASCAL, BASIC
기간: 12월 26일~2월 15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기간: 12월 26일~2월 10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본원: 이대인구
전화: 313-1711-4
영등포: 678-3785, 0750
부: 43-0444-6

총로: 단성시영
전화: 745-0461-2
영등포: 546-4255-6
부: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증강전산학원

현대 시스영어사외국어학원
(외국인의 한국어학원)

대학생 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VOC, 2000, 영자본 연구, 성음 종합영어, AFKN,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성음 종합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개강 12월 1일

과외교수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 5081~2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 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The Korea Herald
외국어학원

대한민국 입시반
고급 TOEFL 종합반
생활 영어 회화
Stream Line
Practical English
Spectrum English
English Alive
Side by side
美國人·日本人會話
일본어·독일어 I·II
일본어 SCREEN
독일어 스페인어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교육과정: 1. 2시간 수업 (월~금) 수업 총 6개 수준. 각 수준 8주
진행 및 반성: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12명으로 반 구성

강사진: 미국·한국·일본·대만·중국·영국·일본의 전인 Native Speakers

The Korea Herald 어학원수원
중·화: 768-7711, 483-484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김푸리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규과정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램인원: 7개월
프로그램인원: 1년
프로그램인원: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MS/DOS, DATA BASE, SYSTEM 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호통계, C LANGUAGE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램인원 특강
과목: FORTRAN, PASCAL, BASIC
기간: 12월 26일~2월 15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기간: 12월 26일~2월 10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본원: 이대인구
전화: 313-1711-4
영등포: 678-3785, 0750
부: 43-0444-6

총로: 단성시영
전화: 745-0461-2
영등포: 546-4255-6
부: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증강전산학원

긴급인터뷰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 인식공유 "절실"



金 澤 口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학 생

「학자투」 관철위한 기본인정 보합성

사태의 원만한 해결위해 대화와 양보 중요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吳 國 根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교 수 회

합의 사항 실천에 주도적 역할 합력

8개항 수용위해 「규정관계특조」서 위상정립중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刑 基 柱

학교발전위해 적극적 자세로 대처해

취업·입시위해서라도 장기농성만은 자제해야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한 國 語 文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서울 23일 특파원 김지현 기자】 교권과 자주권은 하나라는 인식공유가 절실하다는 김지현 특파원의 긴급인터뷰가...

건강 보리음료

난 정말 보리텐,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경중거리는 계모습이 마치 선머슴같죠? 그렇지만 전 음악에 대한 남다른 정열을 가졌답니다.

음악—그것은 제 인생의 전부죠.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른 후 저는 늘 보리텐을 마셔요. 구수한 보리맛도 일품이려니와 무엇보다도 라는 듯한 감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거든요.

해태 보리텐,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가수 이상은

민족해방문학의 현단계 <2>

분단시대의 문학사가 이제 새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 80년대를 맞아 쌓아왔던 민족문학이 그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분단체제적 이념의 잔재를 벗어날려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任 軒 永
〈역사문제연구소 소장·문학평론가〉

첫째 냉전이념이 시대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분단을 빚지 못한 문화적 접근의 정조대를 끌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분단체제의 정치권력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 민족문학사를 급진적으로 몰아내려는 권력이 처분 금지의 담배를 허물 수 없게 되었던 것이 바로 80년대였다. 물론 아직도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 나라에 있는 동포의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느쪽이든 분단조국을 편견없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단된 조국에 대한 인식에서 분단체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민족적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 고집분연한 오늘날의 우리 민족문학의 진로를 선택하는 자양분을 제공한다. 특히 연변문학은 의식의 퇴폐적인 문화의식에 물들지 않은 민족 고유의 미화양식을 그대로 보존·지속·발전시킨 작품들로 우리 민족·민중문학의 한 본보기를 살아있는 소중한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민족문학론의 논거를 밝히면 ①식민지 민족문학론이란 '창비'를 중심한 주장에 대한 80년대 신진 문학인들의 비판에서 나온 명칭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70년대까지의 민족문학론이란 문화전문인들에 의한 민족계몽적 민족문학론의 차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민족문학론은 민족계몽적 민족문학론을 비롯한 민족출신 문학인들의 대거진출과 그 작품에 대한 평가방법에서 새시대의 평론가들은 그 입지점을 그 앞세대로 달리한다. 여기서 ②민중적 민족문학론의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히 '전환기의 민족문학'을 그 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최근의 『녹두꽃』은 그 연장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③민주주의

민족해방 투쟁사의 정통성의 확대와 오늘날의 국내외적 통일전선 확대와 작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여기서 오늘날의 민족·민주주의의 민족문학론의 이론적 뿌리가 근대 카프문학의 어딘가에 닿아있으며 그 계승점으로서 8.15 직후의 문학운동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것이 지닌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인가도 따져야 한다. 1920년대 이후 근대 민족문학운동의 주축들이 되었던 카프는 30년대 중반 들어 해소파와 비해소파로 갈라졌으며 이는 8.15 이후 해소파(임화, 김남조 등)가 주축이 된 문학건설부와 비해소파(이기영, 한설화)가 주축이었던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으로 나뉘어진다.

당시의 정치적 조건 때문에 모임을 통합하여 어휘학과 동맹이 성립하나 그 주도권은 문학건설부쪽에서 돌아와서 남한만을 운동의 대상으로 잡아 주체적이고 자생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경향에서 그 방향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에 따라 오늘날의 민족문학 논쟁은 보다 진지하게 실제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론과 논리만으로 이루어지는 논쟁은 아무리 과학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실천성과 대중성을 확보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식인 위주의 전문적인 전위투쟁을 위한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한글판 미학론은 그 운동의 방향성에서 본다면 민족문학론의 논거를 밝히기 위한 논거를 제공해준 것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론에 따른 우리 민족문학론의 지평선 확대는 80년대 민족문학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모순 조치는 오늘날의 통일지향적 민족문학의 연구에서 아무런 실의성이 없는 공백으로 되어버렸다. 80년대 민족문학의 커다란 성과는 근대 민족문학의 민족해방투쟁이념에 입각한 민족문학의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8.15 이후 문학의 복원 및 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새 시대의 출발을 느끼게 한다.

둘째 80년대 민족문학운동은 분단시대의 가장 빛나는 해방투쟁의 민족문학의 의식을 국내 민족문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연변 조선조 조지주의 우리 동포들이 이룩해왔던 민족문학의 전통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분단문학사의 커다란 성과이자 보람이기도 하다. 해외교포문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의 문화와

민족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집중되어있고 또한 계속 고압시커 나가기 할것으로 본다. 한 부문운동으로서의 '문학운동'도 이러한 대맥락속에서 앞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해방문학'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인식에 그동안 이룩했던 문학운동의 다양한 논쟁들을 살펴보고 민족문학사론, 통일문학, 통일문학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말>

1. 해방공간의 문학과 분단문학
2. 80년대 문학운동의 지평
3. 북한의 문예정책과 북한문학의 이해
4. 해외교포문학의 현황
5. 올바른 통일문학사의 정립을 위해

시 일정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민족해방 투쟁의 변혁운동주체 설정문제부터 그 주체세력의 함의를 무엇으로 잡느냐는 문제까지 교포문학도 작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김학철이 항일투쟁투쟁의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초점을 맞출다면 김달수는 국내민중독립 운동세력이 초점을 맞춘다. 8.15 이후에 이르러서 김

학철이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 김달수는 철학적 당조직에 그 전위적 역할을 맡았다. 이에 비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입시시즌有感

올해는 대학입시시즌이 예년과 달리 한달정도 앞당겨졌다. 일간지의 대학입시 광고를 보노라면 또 한차례 치러질 입시 지옥을 실감케 한다.

입시시즌 대학마다 나름대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무리 일간지에 5단짜리 전단 광고를 내고 東大新聞에 입시유망생 캠프라도

다. 입시시즌 되면 우리학교는 대학의 학적 성과표를 보노는 고질적인 교내외관련문제들이 고개를 쳐들고나와 당혹감을 갖게 한 적도 한두번은 아니었다.

한소에도 마찬가지기는 하나 특히 입시시즌에는 우리대학의 좋은 이미지를 실어줄수있도록 홍보에 전념해도 시련의향을 행원이나

가 말이다. 아무리 일간지에 5단짜리 전단 광고를 내고 東大新聞에 입시유망생 캠프라도

보를 제작한들 그 효과가 반감되기 십상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대학의 신뢰와 호의를 줄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수 있다. 자대대학의 사외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은 누구든 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를 위해 모두 지혜를 모으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과 21일 있었던 제12회 모의총장은 현재 학생이 주장하고 있는 총장퇴진과 맞물려 동국의 자주적

전을 위해서 어떠한 출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모의총장선거에 이어 1백22명의 학생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백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이날부터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고 있는 채로 있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단식을 하고 철수를 쓰게끔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양하다.

지난 학기 8개학에 대한 교수·학교당국의 불성실한 이행 등 동서고급남북을 통틀어서 교육자로 자처하는 사립이라면 누구나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언행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수들은 「다만 합의를 했을 뿐」이라는 말로 밖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해왔다.

이제 약속파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 그리고 최재성 총장퇴진과 관련한 6명에 대한 징계도 부당할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총장퇴진」이라는 문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자인 분간이나 지금 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최고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동국학원의 자주적전을 이루어 내기 학자투의 성과들을 올바르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새총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이대속에서 교수회장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이대속에서는 교수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보직교수가 주도하는 현재의 교수회에서 새총장 선출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수회장은 개입되어 학교의 주체인 교수·학생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다.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이제 더 이상 結繩解之라는 입장으로 늘려 있지 말아야 한다. 「새총은 새부대에」 그렇지 않음에 학생들은 계속 주장할 것이다. 8개학, 10개학에 어떤 백백한 천거의 이행을.

〈정 우석記者〉

공동창작통해 실천성 담보해야

일본·연변의 여러 민족문학작품들(김학철·이근진·김달수·김석범·허남기 등) 들은 근대 민족해방투쟁사의 주체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업에서도 좋은 암시를 던지고 있다.

위의 두가지 사실은 그간 분단체제에 합류하여 왜소화 된 우리 국내 민족문학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민족문학론은 조정환의 논거를 밝히기 위한 논거를 제공해준 것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론에 따른 우리 민족문학론의 지평선 확대는 80년대 민족문학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모순 조치는 오늘날의 통일지향적 민족문학의 연구에서 아무런 실의성이 없는 공백으로 되어버렸다. 80년대 민족문학의 커다란 성과는 근대 민족문학의 민족해방투쟁이념에 입각한 민족문학의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8.15 이후 문학의 복원 및 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새 시대의 출발을 느끼게 한다.

둘째 80년대 민족문학운동은 분단시대의 가장 빛나는 해방투쟁의 민족문학의 의식을 국내 민족문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연변 조선조 조지주의 우리 동포들이 이룩해왔던 민족문학의 전통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분단문학사의 커다란 성과이자 보람이기도 하다. 해외교포문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의 문화와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통일운동의 변혁주체 세력은 민중이라는 전제아래 실제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민족문학 논쟁을 전개시켜야 한다

정부는 일제식민지시대의 5명의 문학인(홍명희·이기영·한설화·조영출·백인준)은 금지된 작품을 그대로 발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15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허용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모순된 조치는 오늘날의 통일지향적 민족문학의 연구에서 아무런 실의성이 없는 공백으로 되어버렸다. 80년대 민족문학의 커다란 성과는 근대 민족문학의 민족해방투쟁이념에 입각한 민족문학의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8.15 이후 문학의 복원 및 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새 시대의 출발을 느끼게 한다.

둘째 80년대 민족문학운동은 분단시대의 가장 빛나는 해방투쟁의 민족문학의 의식을 국내 민족문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연변 조선조 조지주의 우리 동포들이 이룩해왔던 민족문학의 전통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분단문학사의 커다란 성과이자 보람이기도 하다. 해외교포문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의 문화와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중문학론을 지향하면서 운동조직론에서도 소수정예의 원칙을 카프 후계자들을 주축을 것을 주장했다. 분단 고착화는 이후 민족문학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민족문학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남북의 국내적 정쟁이 민족·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을 새겨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시·공시적 시각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의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한 국한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문학에 전개하는 것은 이와 함께 해외교포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전개를 위해서는 통시적·공시적·민중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시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문화행사

중국 농민화展
가나회관에서 중국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계기가 될 「중국 농민화展」을 내달 2일 부터 10일까지 가나회관에서 전시(종로구 관훈동)에서 개최한다. 작업화가 아닌 농

연휴

경주출판사 여학생회 주최 「연휴」글마당 이 오는 25일 오후 2시 북야원에서 운분부와 산문부 나뉘어 재학생들의 숨은 글솜씨를 겨루게 된다. 각부별 시상내용은 장원 2명에게 상금 5만원·상대 차상 4명에게는 상금 3만원·상대 차하 6명은 부상을 각각 수여한다.

제2회 청년영화 학교

민중영화연구소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예술극장 한미당에서 제2회 청년영화학교를 개설한다. 매주 월·수·금 오후 6시30분 열리는 이 강좌는 기본적인 영화의 이해, 민족영화의 올바른 이해를 내용으로 한다. 수강료는 일반인 2천 원이다.

「감찰관」 공연

극단춘추에서는 관료사회의 비리를 풍자한 고골리프 「감찰관」을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인천 우림극장 기획공연에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3-1256)

동약広場

관(자세한 문의는 전화 36-9618)

제4기 문화학교

민중문화운동 연합에서는 오는 12월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문예이론강좌를 개설한다. 문화예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현대 문화운동의 미학적 조망에 관해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8-5396)

중蘇語 강좌

북경 중국어 연구원에서는 매일 1일·15일개강하는 중국어·러시아어강좌를 개설한다. 강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유선택이며 문의전화는 757-5171이다.

공 고

1988학년도 병영집체교육 미일소자에 대하여 아바라 같이 추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입소 바람

사회학도의 밤

사회학도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졸업생 환송 및 사회학도단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가진다.

통계 4년 사은회

통계학과 4학년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아스트리아호텔에서 사은회를 가진다.

서라벌 동문회

서라벌 동문회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4시 하이마트 맞은편 상공에서 졸업생환송회를 가진다. (회비는 1만원)

경북 동문회

경북 동문회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카니발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회비는 1만원)

평택 향우회

평택 향우회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만해시비앞에서 졸업생 환송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회비는 5천원)

미주지역의 해외 AMERICAN LANGUAGE

미주지역의 해외 AMERICAN LANGUAGE CENTER에서 미국대학준비반(미국인교사) 16주 과정수료후 전원 미국대학 진학(전학)

◎미국대학유학상담무(토요일 오전)

상담대상: 중·황 (미국생활 15년) 「이것이 미국대학이다」의 저자 (시중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서울외국어 학원

강남구 논현동 논현오피스텔 2층 (도산공원길 건너편) ○지하철 신사역 영동호텔 출구 버스 24, 83, 567, 영동병원 앞하차 전화: 546-0975, 2870 WE'RE DIFFERENT. TELL YOUR FRIENDS. ○안내서 신청시 우송해 드립니다.

포항병원 거시적 운영계획 세워야

설비보완및 진료교수 충원등 시급



△本校 민주동원의 「제2차정기총회및 참회 1주년기념잔치」가 지난19일 열렸다.

중요·노조문제등 쟁점이며 「건강공제조합」으로 재학생 의료혜택을

【포항23일포항신문】 포항병원(이하 포항대병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포항대병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총회 및 참회 1주년 기념잔치」에서,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포항대병원 이사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본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재학생의 의료혜택 증진과 노조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본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재학생의 의료혜택 증진과 노조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주 代總서 총학 감사 실시

이종예산·불량영수증...집행에 문제 노출

【경주23일포항신문】경주대학교(이하 경주대) 총학생회장인 이종예(21)는 22일 오후 6시 16분경, 대총서(이하 대총서)를 방문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감사 요청 시, 대총서 측에서 "감사 실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감사 요청 후 대총서 측에서 "감사 실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감사 실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감사 요청 후 대총서 측에서 "감사 실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카메라 필름

교과위정취결의대회

【포항23일포항신문】포항대(이하 포항대)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교과위정취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항대 총학생회장인 이종예(21)의 주재로,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포항대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중노동회의 정기총회

【포항23일포항신문】민중노동회의(이하 민중노동회의)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중노동회의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민중노동회의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회장님 임원진원유임

【포항23일포항신문】회장님 임원진원유임(이하 회장님 임원진원유임)은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님 임원진원유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회장님 임원진원유임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회장님 임원진원유임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

【포항23일포항신문】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이하 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교사회교과를 인사교과과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

【포항23일포항신문】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이하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

【포항23일포항신문】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이하 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대학원학원정·부회장의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성환·이파선組 당선

【포항23일포항신문】고성환·이파선組(이하 고성환·이파선組)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고성환·이파선組 당선」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성환·이파선組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고성환·이파선組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

비현실적·반복가이엇 불만

【포항23일포항신문】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이하 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여성학 교과과정 개정필요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미전」개막

오늘 전국 83개대학 참가

【포항23일포항신문】「전국대학미전」(이하 전국대학미전)은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학미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대학미전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전국대학미전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모의총장선거 화제

【포항23일포항신문】「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이하 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학교·문교부·안기부의 3자회의(?)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

【포항23일포항신문】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이하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 회장인 김기환(포항대총장)의 주재로,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의는 교수·학생·가교합의회의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재학생의 의료혜택을 증진시키고, 노조문제 등 쟁점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외제약 콘택트 렌즈

토요일은 샤린스로 단백질 제거하는 날!

눈의 건강을 위해 1주 1회 단백질 제거는 필수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단백질 제거는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달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정도 단백질제거를 하신진 않았는지요? 콘택트 렌즈의 단백질제거는 반드시 1주에 한번씩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제거는 토요일에 하십시오. 새로운 단백질제거제 「샤린스」 샤린스로 콘택트 렌즈의 단백질을 제거하시면 1주일이 더욱 상쾌합니다.

중외제약의 새로운 단백질 제거제 「샤린스」 샤린스는 파파인 효소의 뛰어난 분해 작용으로 단백질 제거효과가 뛰어나고 일약의 용해 시간도 짧아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안과나 콘택트 렌즈 전문점을 찾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약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눈의 가려움증, 충혈, 이물감, 시력감퇴, 안질환을 야기하는 단백질 — 샤린스로 1주에 한번씩 단백질을 제거하고 맑고 건강한 눈을 지키십시오. 단백질 제거제라 부르지 마시고 「샤린스」라 불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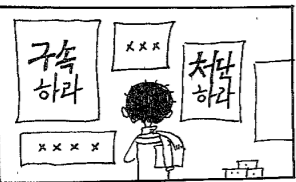
* 샤린스는 뛰어난 효소분해 작용으로 망상 구조의 콘택트 렌즈 용에 끼인 단백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뛰어난 효소분해작용 • 짧은 용해시간 • 간편한 사용방법** **지금,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회 단백질제거제 **샤린스** 정 권정소비자가격 : 1정 → 500원

● 약사님 근무하여 건강사회 이룩하자 ● 약은 약사에게 진료를 의사에게

여로니모

은 황 <78>



비디오文化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비디오는 「본다」라는 뜻이고, 그 「본다」라는 것은 막연히 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본다 라고 하는 보

적으로 시작된 2inch VTR이 가정, 기업단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개인의 표현 Media로서는 1964년에 Sony 회사에서 흑백 2

지난 소형 VTR의 탄생은, 기록 송출을 위한 방송으로부터 떨어져 독자 Communication Media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기법, VTR의 기법 등이 달라졌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화시대의 영상에 의한 정보 처리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속에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영상은 여러가지의 사회현상 속에서 mass media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서 확실성은 mass media를 통해서 복제예술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에서 비디오로 발달하는 과정속에서의 영화는 이것들을 총괄한 영상의 1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자시대의 발달은 텔레비전 시대에 들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편성 되어지는 것이다. 즉 수신자가 적극적으로 송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전자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크게 어필하여 새로운 대중문화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해 가면서 텔레비전 세트앞에 모여있던 시청자들이 보는 텔레비전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즐기는 텔레비전 앞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술의

단순한 뉴스나 오락적 기능에서 벗어나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이 media로 차체에 진부하게 되어서 신비성, 매력도 감소되어왔다. 작가가 고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급속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의 영역에서 개인의 creative인 표현력이 점점 커져가고있는 것이다. 최근의 이 두개의 경향은 텔레비전이 단순하게 뉴스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생각되고 있는 평균적인 인간의 식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뉴스, 스포츠, 오락프로그램을 보내는 것 뿐만아니라 텔레비전의 화면을 피터의 단말기로 서 뉴스의 전송, 주식시장의 reposte, 공중도서관의 보관된 자료 자체의 원방, 전기계통의 monitor 정보 그리고 자기의 은행거래의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정보를 보내어 주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미 확대되고있다. 이러한것은 모두 비디오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personal microprocessor와 idea disc를 활용하면 정말로 급속하게 증대한다고 본다. <예술대교수 영화이론>

는 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진, 영화, 텔레비전등의 시각media에서 찾아볼수 없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연하게 그 media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비디오는 그 자체의 기록특성과 반복시청성등이 뛰어난 개인의 표현media로서도, 또한 집단의, 사회의 정신전달media로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영상media와 공존 비치는 통찰하는 새로운 Communication system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비디오의 기술적 탄생은, 1956년 NAB (전미방송협회) 대회에서 Ampex사가 발표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방송용으로서는 널리 보급되었다. 이와같은 방송의 특



영상의 확산성 통해 복제예술로서의 위치 확보

새로운 대중문화의 지배세력으로 등장...방향성 모색해야

본의 1인치 가정용 VTR이 개발된 후, 1969년에 3/4인치 U-matic VTR의 발표에 의해서 전자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나 기보의 전통을 영상화하기 시작해서 제작기, 상영방법, 영화

1970년에 들어와서 영화산업은 많은 아마추어 영화인들이 늘어나 8mm 영화제작과 Vidio Home System으로 자기들의 기록이 나 가보의 전통을 영상화하기 시작해서 제작기, 상영방법, 영화

"공존속에 이뤄지는 평화통일"

-한반도 긴장완화 조건들 이해에 도움줘

자본주의적 사회주의건에 두 체제는 그동안 확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개혁과 수정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지배이데올로기 테두리안에서만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두 체제내에서 그동안 사상과 행동을 제한해왔던 이데올로기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최초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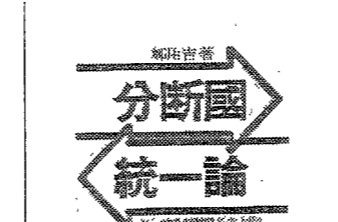
다. 이것은 개혁을지침은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레이건은 취임당시 古典적인自由企業主義의 정당을 주장했지만

현재 그것은 말로만 남아 있을 뿐 실행을위해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이러한 두 체제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상대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고있다. 이러한 상황이 미·소 兩強大國의 균형을추소로 연결될 경우, 두 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전쟁의 위험에서 점차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소간의 東西協力體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쿠데타」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실세를 장악한 일부의 군인들은 그에 만족치 못하고 「광주항쟁」을 조장하고 「학살」을 통해 권력의 전면에 나서기위한 사나리오를 착화 진 행시킨다. 그런 음모에 의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만들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는 그들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세력을 무자위로 제거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라 언론의 비판정신이 꺾이고 권력의 눈치나 살피는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지 않나 싶다. 역시 이것은 군인이 국부의 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욕심을부릴기에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 것이리라. <제자리를 찾지 못해 행진 문제들이 어찌 정치판에서만 벌어졌는가. 사회의 구

서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로는 「악취」들로 골목 들지 못할 지경이다. 순서일가의 비리도 지적을 지경인데 「후계자」라고 하는 자의 아우가 제2의 민간항공인 허가에 작용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달리 눈을 돌려 신성한 「화환」을 살펴보자. 사제지간의 관계가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작용하고 심지어는 「적」으로까지 표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렇다고 「君師父一體」라든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등치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사제지간의 관계도 바뀔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서로간의 관계가 결코 적대관계일수는 없다. 교수는 교수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위치를 찾아 제자리를 지켜야 하지않겠는가. 이런 말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받기까지하니 아득할 따름이다. <영>

제이로의 體制的 필요성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추구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인 긴장완화의 흐름은 남북한에 이러한 흐름의 적응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뜻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政治이데올로기적 긴장완화를 향한 「단절적」 운동들은 역사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政治이데올로기적 긴장완화를 사



정용길 지음 <고려원刊>

통일 열기에 부응 「북한바로알기」로서 통일정책관련 주요 문서까지 수록

최정적으로 요청하는 「만주화」 운동들은 경직된 支配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1988년을 전후로 한 「統一論議」 역시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統一熱氣」는 이제 「北韓바로알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時代的인 조건에 발맞추어 동국대 정의과 鄭用吉교수가 1978년 이래 10년간에 걸쳐 연구 발표한 分斷國의 統一問題에 관

한 글, 특히 東西獨의 경우와 南北韓의 경우를 비교분석한 글들을 모아 「분단국 통일론」(고려원刊)을 엮어냈음은 아주 기쁜 일이다. 이 저서는 분명한 階層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된다. 「分斷統一論」은 「斷絶論」과 「離半論」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離半論」의 「제8장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에 이르는 「5단계 통일론」 구상,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된 기본 주 이론서들을 모아 수록하고 있는 부록은 鄭用吉의 학문적 시야의 넓음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하겠다.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상과 교류를 통하여 공존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한간의 신뢰분위기를 형성, 평화적 통일의 기초를 닦는다는데 중점」(P.358)을 두고있다는 저자의 입장은 東西獨의 경우와 南北韓의 경우와 관련 오 랜 비교연구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과 연결될수 밖에 없는 「선통일, 후통일화」론

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자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5단계 통일론」 구상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얽매어 있는 감을 준다.

尹 謹 植 <成均館大教授·政外科>

만경발득의속

눈보라 속이되어 처음 씩어우기로 다

집하며 기의 더들어 이름 가라앉아 마

로 한지 추위를 견디는 데엔 우선 튼튼

하게 뿌리를 엮어야 하지 어머니가 그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

처럼 이 하찮고 바람 사나운 발목에도

우리의 속소리 절기게 이어 사근하게 솟

는거야 눈 녹길 기다리진 않아 이미 내

를 속내 새파란 피가 흐르고 있지 갑

오면 핀 그 때의 피가. 손춘표 <문과대 국문과>

저희 「태창」은 젊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질기고 편하고 부드러운 것, 바로 「버펄로」입니다.

폴덴, 우단, 데넵, 슈퍼스트레치

언제 어디서나 활동적인 젊음—그들의 행동은 힘차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날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생동하는 젊음의 마당에서 활동적인 젊음이 원하는 것—그것은 손수하고 뜨거운 정열과 생소한 활력, 그리고 권하고 믿지않는 캐주얼입니다. 젊음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기업「태창」-태창이 생산하는 100%순면 원단 「버펄로」폴덴, 우단, 데넵, 슈퍼스트레치는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캐주얼복입니다.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의 80%가 버펄로 원단입니다.

SS메이커, 만도페인, 동모이 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와 봉제수공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의 캐주얼웨어들과 굳이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펄로」 원단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크가 순면 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기고 부드러운 캐주얼복지 버펄로는 대한방직회사가 100%순면제품을 보장하는 롯데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자랑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수복 애착이 가는 선뜻한 색상과 흡수성, 통기성, 방수성이 뛰어나고 갈 때도 쉽게 닳아내려 나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있는 경제적 활동복입니다.

태창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버펄로 폴덴 가는 울에서 굵은 울이네로 있습니다. 울과 가는 울을 혼용하여 짜서 만든 울이 가는 울보다는 장수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펄로 슈퍼스트레치 (데넵, 폴덴) 고신축성 울복(Super Stretch)로 순면 울의 부드러운 촉감과 고신축성을 겸비한 장수용 울이 짜여져 있습니다.

버펄로 우단 100%순면으로 짜여진 장수용 울이 짜여져 있습니다. 입수복 애착이 가는 선뜻한 색상과 흡수성, 통기성, 방수성이 뛰어나고 갈 때도 쉽게 닳아내려 나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있는 경제적 활동복입니다.

버펄로 데넵 (부부진, 갈라진) 프린트 폴덴-우단-데넵 면직물을 특수한 프린트기로 다양한 색상과 선뜻한 색상을 줄일수 있는 인디고 데넵과 선뜻하고 다양한 색상이 재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태창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태창여성상 태창여성상은 어려운 여건때문에 배우지 못한 중산원들을 위해 공장에 설립된 정규과정의 고등학교로서, 540여명의 중산원들이 수업료는 물론, 교복, 교차,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태창」은 재단법인 일맥문화재단을 설립, 부산 및 경남도내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과 문화진흥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지원 태창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는 명연히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원들이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정의 하나로 묶는 「내집마련운동」의 결과로 사원들의 임무 생활이 높아짐은 물론, 150여명의 사원들이 내집을 마련하여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기업상 정립 지역사회개발과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 힘쓰는 태창은 단체 산업은행, 새마을중앙협동조합, 국민중앙협동조합, 수출공로상 등 많은 인연을 맺어오며 오늘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업공리의 실천을 위하여 2,500여 중산원들은 목숨이 걸려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창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본사(부산) 512-2211-8 서울사무소 733-5935-9